

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(Bosnia & Hercegovina)

(2004. 3)

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

面 積	5.1만 km ²	貨幣單位	Marka(KM)
人口(2003)	4.2백만 명	환율('03)	KM 1.73/USD
GDP(2003)	70억 달러	會計年度	1.1~12.31
1人當GDP(2003)	1,667달러		

1. 경제동향

가. 국내경제

단위 : %

구 분	2000	2001	2002	2003e	2004f
경 제 성 장 륜(%)	5.4	4.5	3.8	3.5	3.8
물 가 상 승 륜(%)					
BiH 연 방	1.5	1.7	-0.2	0.1	2.3
Srpska 공 화 국	14.6	6.5	1.7	2.1	1.5

☐ 비정상적인 경제구조

- 2002년 GDP 대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46.1%로 1999년의 56%와 비교하여 약 10%가 하락하였음. 이는 내전으로 피해를 입었던 산업시설이 회복되고 있고, 체제개혁으로 인하여 비대한 공공부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.
- 반면, 산업부문의 비중은 32.7%로 1999년의 22%에 비하여 약 10% 상승하였음. 이는 해외원조를 바탕으로 한 산업시설의 복구와 음·식료, 섬유, 목재, 기초금속 등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임.

☐ 경제성장세 점차 둔화

- 1990년대 후반에는 전후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투자와 소비

가 증가된 데 힘입어 1996~2000년 중 연평균 24.1%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어왔으나,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200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3~5% 전후에 머물고 있음. 2002년 3.8%를 기록하였던 경제성장률은 국내수요의 위축으로 인하여 2003년에는 3.5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에는 세계경기회복, 국내 인프라 투자 증가, 사업환경의 개선 등으로 3.8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취약한 경제여건으로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동국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달려 있음.

□ 소비자물가는 안정세

- 1998년에는 Marta(KM)화가 BiH¹⁾ 전지역의 공용화폐로 자리잡았으며, 환율을 마르크화에 고정시킨 통화위원회 제도가 정착되었음. 이에 따라 연방지역은 일찍부터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음.
- 2001년 이후로는 스프스카(RS) 공화국의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2002년 0.6%, 2003년 1.0%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, 2004년에도 1%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취약한 재정구조

- 관대한 사회주의식 복지제도, 과다한 군비지출, 전후 복구수요 등 막대한 재정지출 수요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- 연방과 RS 모두 약 40%에 달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암시장 등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1/3에 이르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동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.

1)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(BiH)는 1995년 Dayton 평화협정에 따라 이슬람-크로아티아계 영역인 연방과 세르비아계 영역인 스프스카 공화국(RS)이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을 이루고 있음.

나. 국제경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0	2001	2002	2003e	2004f
경 상 수 지	-1,192	-1,563	-2,139	-2,025	-1,600
경상수지/GDP	-26.3	-33.4	-38.2	-28.9	-19.9
상 품 수 지	-2,622	-2,960	-3,404	-3,420	-3,000
수 출	1,174	1,131	1,115	1,280	1,500
수 입	3,796	4,091	4,519	4,700	4,500
외환보유고	486	1,215	1,318	1,792	n.a.
총외채잔액	2,387	2,226	2,800	3,500	3,900
총외채잔액/GDP	51.7	44.6	n.a.	n.a.	n.a.
D. S. R.	19.2	19.1	n.a.	n.a.	n.a.

자 료 : EIU, IFS, GDF.

□ 막대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수입규모가 수출의 3배를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 이는 수출기반은 빈약한 데 비하여, 막대한 전후 복구수요로 수입확대가 불가피하여 큰폭의 상품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.
- 2003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-28.93%에 이르나 이는 2002년의 -38.2%에 비하면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임. 특히, 2003년에 수출은 큰폭으로 증가(2002년 대비 14.79%)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(2002년 대비 4%)에 그쳤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져 2004년에는 적자폭이 -20%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.

□ 주교역국의 분리

- 연방은 크로아티아와 독일에, RS는 세르비아-몬테네그로(구 유고연방)에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등 사실상 국가경제가 분리되어 있음.
- 200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던 수출이 독일, 크로아티아, 스위스 등 동국의 주요 교역국과 EU의 저조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플러스 증가(전년 대비 14.79%)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, 2004~5년 중

EU의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4년 수출증가율은 17%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□ FDI 유입과 민영화 추진

- 중·동부 유럽의 체제전환국 대부분에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동국은 오랜 내전 및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FDI 유입이 극히 미미하였으나, 2003년 들어 연방과 RS 모두 여러 부문에서 FDI 유치 및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11월 사라예보 소재 국영호텔을 22백만 달러에 성공적으로 매각하였음.
- 2003년도 FDI 유입액은 연초 전망치보다 높은 3억 6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~05년에도 FDI 유입액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2. 정치·사회동향

□ 실질적으로 2개의 국가가 공존

- 1992년 발발한 내전이 1995년 데이튼협정으로 종결된 이후 아직까지 UN의 감시하에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.
- BiH는 이슬람계-크로아티아계인 연방과 세르비아계인 RS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이면서 명목상의 국가연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여된 상태임.
- 두 국가에 각각의 의회가 있고 중앙의회는 양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슬람계, 크로아티아계, 세르비아계 각 민족대표 3인이 8개월 주기로 대통령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음.

□ 총선에서 민족주의 정당이 다시 득세

- 2002년 10월, 3개 의회의 1,148개 의석과 RS 대통령 자리를 놓고 57개 정당과 9개 연맹이 참여한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인 민주행동당(SDA)과

세르비아민주당(SDS) 및 크로아티아민주동맹(HDZ)등 강경 민족주의 3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함.

- o 지난 2년간 개혁성향의 9개 군소정당과 함께 민족간 통합을 추진해 온 사회민주당(SDP)이 패배하고 각 민족집단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득세함에 따라 서방사회와의 연대가 약화되고 정치적 혼란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.
- o 연방 및 RS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-몬테네그로에서도 최근 선거에서 민족주의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BiH에서의 민족분규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.

□ 장기적으로 EU 가입을 목표

- o 2003년 4월 유럽의회(CE)의 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데 이어 EU와의 협력협정 및 WTO 가입 추진 등 서방세계와의 협력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.
- o BiH는 차후 EU 가입을 위하여 2003년에 인접국인 크로아티아, 마케도니아와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였으며, Euro-Atlantic Structure의 일원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강화 및 문호개방 등 일련의 중요한 개혁을 추진키로 한 바 있음.

3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□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- o OECD: 7등급(2004. 1)
- o I. I: 97/172(2003. 9)
- o Euromoney: 110/185(2003. 9)
- o Moody's, S&P, Fitch, I.C.R.G. 는 등급 없음.
- o 파리클럽(1999년)에서 5억 6,600만 달러의 리스케줄링 경험에 있으며,

2001년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22억 2,600만 달러로 GNI대비 44.6%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.

- 총외채중 단기외채잔액(5,900만 달러)이 차지하는 비중은 2.6%로 낮은 수준이나 수출규모에 비해 장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중이 높아 DSR은 약 20%에 이르며, 이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4. 요약 및 전망

- 취약한 산업기반,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BiH가 안고 있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급격한 경제개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, EU 가입을 위하여 최근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대외개방 및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현상임.
- 2002년 10월의 총선 결과 연방과 RS에서 각 민족집단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세력을 얻게 됨에 따라 정치·사회적인 긴장과 민족간 분규재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<기 타>

가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 : 1995년 12월 15일(내전종식 직후)

- 교역현황

단위 : 천 달러

	2001	2002	2003	주요 품목
수 출	4,830	2,831	5,499	차량, 기계류
수 입	22	78	23	신발, 의류

자료 : KOTIS, 한국무역통계.

- 해외직접투자현황(2004년 2월말 현재) : 0건, 0천 달러